

사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미국이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76년이 넘었다.

둘러보면 미국의 조선침략사는 19세기 중엽의 《서면》호침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방의 한강에 있는 조선반도를 오래전부터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책동을 벌여온 미국은 20세기초에는 범죄적인 《가쓰라-라트르협정》에 따라 일본의 조선강점을 묵인비호해주면서 장차 조선을 강점하려고 획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자 미국은 서둘러 38°선남지역에 대한 분할점령안을 고안해내고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상륙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오랜 대조선침략책동의 산물이었다.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라 명백히 군사적강점자였다. 이것은

《맥아더보고》에서 저들 스스로 미군을 《점령군》으로 선포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조선반도의 허리에 분계선말뚫을 박은 미국은 전조선민족의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요구를 짓밟고 《유엔》의 감관을 도용하여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단선단정》을 조작함으로써 나라의 분열을 고착화하고 대대로 한강자락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들로 갈라놓는 용서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이뿐이 아니다.

침미주자들을 사육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게 함으로써 삼천리조국강토를 불바다에 잠그고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수백만명의 우리 겨레의 목숨을 앗아가는 천인공노할 범죄도 저질렀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전쟁시기 학살당한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의 유품들

이 계속 발굴되고있는것은 미강점군의 귀족같은 만행들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남조선과의 이른바 《호상방위조약》 체결을음으로 군사적강점을 무한정 지속할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불평등적인 《한미행정협정》의 체결로 남조선강점 미군은 치외법권적인 존재가 되어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를 끼리끼리 저질러왔다. 동두천내 인신박사건, 윤공이사건, 두 너너 학생살해사건을 비롯하여 미군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사건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미군의 남조선강점 70여년력은 강점군의 이러한 처절리는 범죄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하여 온 남조선땅을 침략의 전

초기지로 만들어놓고 해마다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고 각종 군사적도발사건들도 일으키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 몰아갔다. 그런가 하면 전쟁연습의 핑계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기운에 찬물을 끼얹으며 악랄하게 책동해왔다.

홀리는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강점 미군이아말로 우리 민족이 당하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군강점의 치욕의 력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지난 세기 중엽에 시작된 미군강점의 력사가 7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있는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군강점의 력사가 지속될수록 남조선인민들은

비탄하여 우리 겨레가 당하는 고통은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미군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는것은 예측과 골증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에 살려는 남녘의 민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자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

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열을 끝장내는 길은 외세의 의존하여 해결할수 없다. 미국은 지금 이 시작에도 우리 민족이 잘되고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계속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하기를 바라고있다.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두철한 민족자주적립장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족자주가 민족이 살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고 미국배적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지배하면서 반세기이상이나 부식시켜온 뿌리깊은 송미, 공미의 의식을 털어버리고 친미사대공조를 뿌리뽑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국과 합동으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강점은 더욱 격화되고 전쟁위험은 고조되고있다.

연습의 규모가 어떠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의 실행준비를 보다 완비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예비연습으로서의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절대로 가라앉을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도 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를 계속 피우는 호전세력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지난 8월 4일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요구한것을 시작으로 각지에서 집회와 시위들을 벌이고있는것은 그 반증이다.

온 겨레는 투철한 민족자주와 평화수호의 립장에 서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합치게 벌려나감으로써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수호를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해외동포들과의 연대와 단합을 위하여

해외동포들도 통일의 주체적역량으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는 내외통일세력의 책동속에서도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80년대초에 북과 해외동포들 사이에 통일력량의 연대대화를 위한 대화와 접촉이 활발히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공화국은 북과 해외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민중 인사들과 종교단체들에 편지 등을 보내어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 협상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1년 6월 서부오지칠란드(당시)에 있는 《조국통일해방기독자회》 회장이 평양을 찾아왔고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 둘 사이의 접촉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동포들 사이의 다각적인 대화를 실현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조국통일에 관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를 마련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

히 전개되었다.

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198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뜻깊은 첫 대화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회에서는 통일의 열망과 동포애의 정 넘치는 가운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중심의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선이 외세의 회색화되어 되어 영구분열될수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나라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리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자주, 민주, 평화, 중립적인 연방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의 유일한 출로인 연방국가를 세우기 위한 통일의 길에

떠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각계 동포들의 광범한 접촉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의 마당을 더욱 넓혀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회의는 해외동포들이 민족적리념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단결하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에게 새로운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었다.

1982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제2차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제1차 대화회는 주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교신자간의 대화였지만 제2차 대화회는 그리스도교신자뿐 아니라 각계층 동포들이 참가한 범종교적인 대화로 발전하였다.

이 대화에는 공화국북반부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온 1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미민주화투쟁을 구원할데 대한 문제와 민족주체적성취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가 중심문제로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부터는 북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북과 해외동포간의 폭넓은 범종교대화를 쌍방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할데 대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접촉과 대화, 협상을 통하여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에는 신뢰의 정이 두터워지고 통일운동에서의 연대가 실현되게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인 기구를 내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북과 해외동포들간의 범종교대화를 위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이 결성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연합》이 결성됨으로써 해외의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있는 동포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불려일으키며 통일운동의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극복하고 운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여러 대륙의 해외동포들이 민족자주의 리념에 기초하여 하나의 통일애국력량으로 결속되고 북과 해외가 실현되게 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민족대통일전선형성에서 하나의 주춧돌이 마련된 뜻깊은 사변으로 되었다.

1980년대 해외동포들과의 연대가 실현되고 민족대단합의 사장이 펼쳐지게 됨으로써 온 겨레의 소망인 통일국가창건의 필수적조건인 3자연대와 민족대통일전선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가 닦아지게 되었다.

최성일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라

우리 공화국은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정치신앙으로, 생활의 본령으로 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만사람을 품어안는 인덕정치, 광복정치로 건설하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민족의 리익우에 그 어떤 계급이나 당파의 리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신념도 장벽도 뛰어넘지 못할것이었다는 민족중심의 관점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을 열어나가는 이날로부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전 력정에서 이민위천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민족적량심과 애국심을 가진 민족정신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견이나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포섭하고 단합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애같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하여 종교인들도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해방후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그리스도교신자 김광욱목사님을 만나시였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앙생활

로 마음의 안식을 찾으며 살아온 목사의 과거사를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 이제는 일본놈들이 망하고 나라가 해방되어 인민의 세상이 되었으니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고 우리 나라가 부강하기를 기원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스도교리에 정통하였고 식견이 해박하였으며 웅변력이 뛰어나고 설교가 능란하였던 강랑목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되어 가족들에게 새 조선과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나뉘어나선 민족의 존귀를 위하여 할 위대한 신승은 김일성장군님이다사라고 자신의 심경을 터놓았으며 그때부터 수령님의 건국리념을 성실히 받들었다.

리념과 신앙우에 애국애족이 있으며 그것이 단결의 공동분분이라고 보시고 종교인들까지도 애국의 대에 내세워주고 보살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온총에 의하여 강랑목사는 한때는 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공화국 부주석으로도 활동하면서 애

국위업에 한몸을 목욕비치였다.

강일의 나날 《조국광복회10대 강령》에 명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리념을 해방된 조국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리념으로 승화시키고도 신앙도 초월하여 애국의 역센 뿌리를 내리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넓은 포용력과 친화력에 의하여 해방전 남조선에서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며 살지 않으면 안되던 전 남조선 그리스도교민주동맹위원장이었던 김창준목사도 해방후 공화국에 삶의 뜻을 내리었고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의 직책을 지니고 민족단합과 나라의 통일완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강병성, 안신호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그이의 뜻에 살고 애국에 살았다.

부연한건대 우리 공화국은 각계층 모든 사람들의 총의와 애국심을 더하며 건설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 근로하는 전체 인민이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고 그들을 위하여 북부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김명일



조국해방 70돐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 (2015년)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도 외세가 없는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평화롭고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광복 76주년 한반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와 《미국 없는 자주의 시대, 우리 힘으로 풀라》라는 가치를 본 민주로총 22기 중앙통일선봉대(통선대)의 투쟁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문제이다. 민족의 내부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외세의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의 비운을 겪어왔던데도 애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족의 운명이 외세에 몰락당하게 된다.

때문에 공화국에서는 시종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토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자주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동되어

북과 남의 온 겨레는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추고나서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배대배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승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하며 통일운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주의식을 쫓고 민족자주력을 발휘하는 민족의 힘으로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통일과 분열, 애국과 배국, 전쟁과 평화가 랑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랑립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인철

통일을 불러

민족자본가가 공화국의 대의원으로 (4)

백 두산 선생 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리종만선생의 삶은 가장 복받은 삶, 더없이 빛나는 삶으로 이어졌다.

주체46(1957)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회의원선거에서 리종만선생은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2살이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물론 그의 과거에 대해 알고있는 해외동포들까지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을 공개한 신문에서 리종만이라는 이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인생말년에 나라의 정사를 도의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나서게 된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남조선출신의 리종만선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된 사실에서 사람들은 절세위인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던것이다.

리종만선생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인정깊은 사랑은 생활의 구석구석에도 따스하게 미치였다.

1954년 초봄 어느날 선생은 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해방산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건설된 아담한 살림집으로 가게 되었다.

넉직한 방이 여러칸이고 시원한 마루방, 창고, 목욕탕, 자그마한 정원까지 달린 훌륭한 집이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그에게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교시하게 하여 선생이 이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때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토굴집에서 나오지 못하고있던 어려운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을 생각할수록 선생은 감사의 정이 사무쳐서 감사를 이룰수가 없었다.

그러던 그에게 뜻밖에 막내아들이 찾아왔다.

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시고 리종만선생이 잘 지내고있지 않나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뭐든 기뻐하시라고 하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이처럼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속에 선생은 팔과도 상봉하게 되었으며 귀여운 손자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90살이 넘도록 행복속에 여생을 보낼수 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선생이 9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못내 애석하시며 그의 장례를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후 아버이수령님께서선생의 딸이 살고있는 리종만선생의 딸이 조국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비행기표도 마련해주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공화국의 여러곳에 대한 견학도 할수 있도록 온갖 정을 다 기울여주시였다.

이 소식을 전해듣고 남조선에 살고있던 리종만선생의 아들들 누구도 감개무량하여 북녘가까이 있는 곳까지 수백여리나 되는 길을 단

숨에 달려와 평양하늘을 우러러 깊이 인사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일찍이 망국의 그 세월 동안의 풍운속에 휘말려 목절 많은 생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애국적정신을 저버리지 않았던 민족자본가 리종만선생은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신미리에 국철사후에 안치되어있다.

리종만선생의 삶을 더없이 빛내주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에는 끝이 없었다.

주체 79(1990)년 8월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조국통일상을 제정하여 통일애국의 길에 이름을 남긴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을 때, 그속에는 리종만선생의 이름도 있었다.

정령 민족의 위대한 아버이의 품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기며 통일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영생의 언덕우에 빛난다는것을 리종만선생의 인생길이 잘 말해주고있다.

본시기자

민족자주는 통일애국, 외세의존은 분열배국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단과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웨치며 투쟁기세를 높였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장장 70여년의 민족분열의 력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조국의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 팔화되고 악랄해지고있다.

해마다 각종 명목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 남조선 미국합동군사연습과 무장장비반입이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민족자주는 통일애국, 외세의존은 분열배국

